

##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조사연구 -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중심으로 -

좌 명 훈<sup>1)</sup> · 이 세 형<sup>2)</sup>

### A Study on Cultivating Moral Characte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wa, Myoung-Hoon · Lee, Sei-Hy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shall examine if there a difference of morality betwe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and among different levels of sex, religion, age, social, education.

The population was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Jeju.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37 males and 132 femal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judo experts and 134 males and 135 femal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non-judo experts. Self reporting method quoted from <The Defining Issue Test: DIT> of Rest, used to test 538 persons of all subject.

There kinds of examination were used is t-test to check a difference of moral sense betwe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The other is one-way ANOVA to check a difference among different levels of sex, religion, education, social, education in parents.

The findings of study were the followings.

1. judo experts have higher point in P(%)point, the growth level of morality than non-judo experts.
2. Women judo experts revealed the higher morality development than m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same thing, but judo experts revealed the morality development.
3. In both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was not level of religion morality development.
4. high school judo experts revealed higher morality development compared to middle school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same thing, but judo experts revealed the morality development.
5. In both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was not level of social morality development.
6. Different education level leads in judo experts of parents different points of moral growth in morality grades.

---

1) 제주 한라대학 강사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문명의 발달과 쇄도하는 정보지식을 주체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차 가중되는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지식편중의 문화 풍토 속에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의 현상이 두드러져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규범과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최영근, 1992).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은, 그 속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때에 도덕교육은 교육의 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덕성 상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하겠다(방은명, 1994)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으로 부가되는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전환시켜 주며,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내재조건이며 가치성향인 도덕성을 재정립하고 발달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조영호, 1993)

이러한 도덕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도의 경우 단순히 기술수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유도의 도덕적인 정신을 체득해서 실생활의 신조로 삼는 것이 유도의 목적이다. 유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도수련을 통하여 인간의 도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도 경기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거나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등 지나치게 외적인 과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스포츠맨십을 저버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도의 본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수련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도를 배워 가는 도덕성 발달을 간과하게 된다(천길영, 1994)

유도의 근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유도는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발생되어 격기형식으로 하나의 무술로서 전승되어 오다가 1882년 일본의 Gigo Kano(1860~1938)에 의하여 현대 스포츠로 체계화되었다(김의환, 1986).

무도 성격을 띤 유술(柔術)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체육(physical education)·호신(self-defense)·수신(moral training)의 3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고, 초기에서부터 유도는 단순히 기술 연마의 차원을 떠나서 체육(physical growth)·승부(challenge)·수신(moral training)의 3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을 둔 교육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었다

이처럼 유도의 본래 목적은 수련과정을 통하여 도(道)를 체득해 나가는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유도수련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하고 도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의 도덕성 함양에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유도 수련을 통한 올바른 도덕적 발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남·여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도 수련과 도덕성의 관계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내 남, 여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538명을 <표-1>과 같이 표집 하였다.

<표-1> 표집인원

대 상	남		여		계
	유도수련자	비수련자	유도수련자	비수련자	
중학교	65	65	65	69	264
고등학교	72	69	67	66	274
계	137	134	132	135	538

### 2. 연구도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임번장(1986), 구창모(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 중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계층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도덕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Rest(1979)의 도덕판단력 검사지(D.I.T)의 6가지 도덕적 갈등상황 중 3가지 ("한얼"씨의 고민, 탈옥수 "꽃님"씨, 의사의 고민)인 문용린의 한국어 번역본인 생활문제지이다.

DIT는 Rest가 Kohlberg의 주관식 개인 면담 방법의 도덕성 발달 검사방식을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변형 제작한 것으로,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도덕성 측정과 검사실시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DIT의 간편형(short form)에 해당하는 생활 문제지는 DIT 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탐색적 단계를 거친 것이다. DIT는 3개의 딜레마가 제시되고, 각각 12개의 질문이 나온다. 이 12개의 질문은 각각이 도덕성 발달단계(Rest의 구분에는 1단계가 없고 2, 3, 4, 5A, 5B, 6의 여섯 단계)중 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4개의 질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한 문항에는 4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에는 3점, 세 번째는 2점, 네 번째는 1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험자가 각 질문 문항에 대해 평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 그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12개의 질문문항 속에는 도덕판단의 2, 3, 4, 5A(사회적 제약계급의 도덕성), 5B(직관적 인간주의 계급의 도덕성), 6단계에 해당되는 설명과 퇴행경향(antiestablishment orientation)을 보여주는 'A' 문항과 무의미 문항(meaningless item)을 의미하는 'M' 문항에 해당되는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어 부적당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피험자의 검사는 통계처리 시 제외하게 되어 있다.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수는 P(%)점수로서 피험자의 도덕 판단 중에

서 5, 6단계(5A, 5B,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그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도 높은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DIT의 갈등상황별 단계구분은 <표-2>와 같다.

<표-2> DIT의 갈등상황별 해당단계 구분

갈등상황 \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얼씨의 고민	4	3	2	M	3	4	M	6	A	5A	3	5A
탈옥수 꽃님씨	3	4	A	4	6	M	3	4	3	4	5A	5A
의사의 고민	3	4	A	2	5A	M	3	6	4	5B	4	5A

이와 같이 갈등상황별로 중요하다고 선택된 네 가지의 질문문항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2, 3, 4, 5A, 5B, 6단계와 A, M)점수를 합산한다. 이 점수를 단계별 원점수라고 한다. 5A, 5B, 6단계의 원점수를 합하여 구한 P점수에 세 가지의 갈등상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0.3을 나누어서 P(%)점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P(%)점수는 피험자의 도덕적 사고 중에서 5A, 5B, 6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DIT에 대한 일관성 검목의 기준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M'점수가 4점이상 일 때 ② 한가지 갈등상황에서 9이상의 일관성 결여점수가 나타날 때 ③ 두 가지 갈등상황에서 10개 이상의 동일한 평정이 나타날 때 그 응답자는 무의미한 자료로 처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표집대상 인원 579명중 41명을 무의미한 응답자로 제외한 538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3> 설문지의 구성지표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인구학적 변인	성별, 종교, 학교급별	3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계층, 부모의 학력	2
도덕성	"한얼"씨의 고민, 탈옥수 "꽃님"씨, 의사의 고민	3
계		8

### 3. 연구 절차

설문지의 기재방식은 연구자 및 협조자가 표집대상 학교 및 체육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자기평가 기록방법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 1)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도덕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유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가설 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을 P<.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4> 과 같다.

<표-4>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대 상	사례수(n)	P(%)값	T 값	유의수준
유도수련자	269	33.26	4.964	.000 <sup>***</sup>
비수련자	269	27.61		

<표-4>에 의하면, 유도 수련자와 일반학생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유도수련자가 33.26, 일반학생이 27.61로 유의수준에서 유도수련자가 5.65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수련자에 비해 유도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가설 I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P(%)값을 독립변수로,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종교의 유무·학교급별·사회계층·부모의 교육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1을 P<.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5>과 같다.

<표-5>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성 별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남	137	28.08	45.927	.000 <sup>***</sup>
	여	132	38.64		
비수련자	남	134	24.36	5.770	.017 <sup>*</sup>
	여	135	27.77		

<표-5>에 의하면, 남·여 수련자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남자 수련자가 28.08, 여자 수련자가 38.64

로 유의수준에서 여자 수련자가 10.56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수련자에 비해 여자 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여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점수인 P(%)값은 남자가 24.36, 여자가 27.77로 유의수준에서 여자가 3.41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비수련자에 비해 여자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련자와 비수련자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수련자와 비수련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 유무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II-2를 P<.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6> 과 같다.

<표-6>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종 교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종교있음	209	33.48	.233	.630
	종교없음	60	32.50		
비수련자	종교있음	175	26.65	1.219	.271
	종교없음	94	24.99		

<표-6>에 의하면, 수련자의 경우 F값이 .233 유의도가 .630이고 비수련자의 경우 F값이 1.219 유의도가 .271이므로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II-2 는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즉,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급별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3을 P<.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7>와 같다.

<표-7>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학교급별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중학교	130	30.59	9.713	.002 <sup>**</sup>
	고등학교	139	35.76		
비수련자	중학교	134	24.90	2.641	.105
	고등학교	135	27.23		

<표-7>에 의하면, 수련자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중학교 수련자가 30.59, 고등학교 수련자가 35.76으로 유의수준에서 고등학교 수련자가 5.17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수련자에 비해 고등학교 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수련

자의 경우 중학교 비수련자가 24.90, 고등학교 비수련자가 27.2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련자의 경우와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계층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4를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사회계층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상	33	34.89	.437	.646
	중	226	32.92		
	하	10	35.67		
비수련자	상	31	24.18	1.984	.140
	중	214	25.87		
	하	24	30.28		

<표-8>에 의하면, 수련자의 경우 F값이 .437 유의도가 .646이고, 비수련자의 경우 F값이 1.984 유의도가 .140이므로 사회계층에 따라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4는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즉,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5를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9>과 같다.

<표-9>에 의하면, 수련자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성 점수인 P(%)값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38.54, 고졸인 경우 33.51, 중졸이하인 경우 31.09로 나타나 수련자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련자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수련자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은 수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교육수준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중졸	52	31.09	4.784	.009 <sup>~</sup>
	고졸	155	33.51		
	대졸	62	38.54		
비수련자	중졸	55	22.40	6.362	.002 <sup>~</sup>
	고졸	124	25.40		
	대졸	90	29.23		

## IV. 논 의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의 차이와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성별, 종교, 학교급별의 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사회계층, 부모의 학력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Rest의 DIT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I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차이는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순근(1994), 천길영(1994), Hall(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오순근(1994)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천길영(1994)은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Hall(1981)은 Kohlberg의 이론을 스포츠 참가자에게 적용시켜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였는데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어진 이상과 같은 사실은 유도수련과 도덕성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즉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기본적인 유도의 정신자세 및 도덕성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2. 유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II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 학교급별,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사회계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의하면 여자수련자가 남자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근하(1992), 오순근(1994), 허혜경(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교급별에서는 고등학생 수련자가 중학생 수련자에 비해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에서 말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성 성숙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부합하고 있어 Piaget(196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Piaget는 아동들의 놀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도덕성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한 도덕 판단이 더 빈번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천길영(199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유도수련자일수록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종교, 사회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적은 변인이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이미 설정한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이해되는 사실은 유도수련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도덕적 연구가 갖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인의 설정에서 기존의 성별 및 학교급별에 국한된 연구에 부가하여 종교, 사회계층, 부모의 교육수준을 설정하여 도덕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해 주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주요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상물 중·고등학생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 대학생 및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며 분류기준 및 정확한 척도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Rest의 DIT를 이용하여 도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도덕성이라는 큰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건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변인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변인 및 문화적 배경변인을 설정하여 보다 훌륭한 연구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도덕성 발달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부하리 만큼 사회적 공감대 큰 부분이다. 특히 운동 종목이 도덕성 발달 연구에 여러 가지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개념 자체가 크고 복잡할 뿐 더러 실제연구에서 오는 어려움 또는 건실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유도의 특성은 도덕 발달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종속임을 입증하는 바이다. 이는 유도 본래의 특성에서도 그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도덕성판단수준과 발달에 관련 있는 수련자의 성별, 학교급별, 종교, 사회계층, 부모의 교육수준 변인을 선정하여 각 변인들에 의한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현재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유도수련자 269명, 비수련자 268명, 총 538명을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로서 구창모(1985), 임변장(1983)의 연구에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변인을 발체하였고, 도덕성에 관한 질문지는 Rest(1979)의 DI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였다.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에 있어서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1)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있어서 여자 수련자가 남자 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여자가 남자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고등학교 수련자가 중학교 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비수련자가 중학교 비수련자 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참고 문헌

- 구창모(1991).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익환(1995). "유도 매치기 기술의 생체 역학적 분석을 통한 유도인형의 유용성 평가."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방은령(1994).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자기보고의 내용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스포츠과학연구소(1983). 「유도의 코우칭」. 서울 : 대한체육회
- 오순근(1994). "스포츠 참가와 도덕성발달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근하(1992).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변장(1986). "스포츠사회화와 자기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영호(1993). "운동선수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천길영(1994). "유도수련을 통한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영근(1992). "유도수련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체육과학대학교 무도연구소지, 제4집 제1호.
- 허혜경(1992). "DIT 검사법에 의한 한국 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Hall, E.(1981). Moral development levels of atheletics in sport specific and general Social sititious. Unpublished.
- Kohlberg, L.(1967). Stage and Squence :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ed. Goslin D. New York : Rand Macnally.
- Piaget, J(196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N. Y.
- Rest, J.R(1973). Patterns of preference and comprehension in moral ju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41.
- Rest, J.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eapolis : Univ of Minesota Press.